

CJ, 2005년 순이익 1364억원

CJ는 2005년 4/4분기에 매출 5827억원, 영업이익 314억원, 당기 순이익 368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1월16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2005년 전체 영업실적은 매출 2조4599억원, 영업이익 1924억원, 당기 순이익 1364억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2005년 영업실적은 2004년에 비해 매출은 3.3% 줄었고 영업이익은 26.5% 늘었으며 당기순이익이 11.5% 감소한 것이다.

CJ는 당기 순이익이 크게 줄어든 데 대해 “2005년 해찬들 인수 등 공격적인 기업투자와 라이신 판매가격 하락에 따른 지분법 평가손 등의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생활화학 사업부문 매각을 감안하면 2004년에 비해 매출이 2.7% 증가 한 셈”이라며 “경기회복에 따라 프리미엄 제품의 판매가 호조를 보였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됐고 특히, 고급 육가공 제품과 편의식품 판매가 늘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CJ는 이사회를 통해 2006년 배당기준을 2005년 수준인 31%로 유지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보통주 기준으로 주당 1500원씩 현금 배당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 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1/18>